

Abstract geometric lines in the top left corner, consisting of several overlapping, tilted rectangles and polygons in a light gray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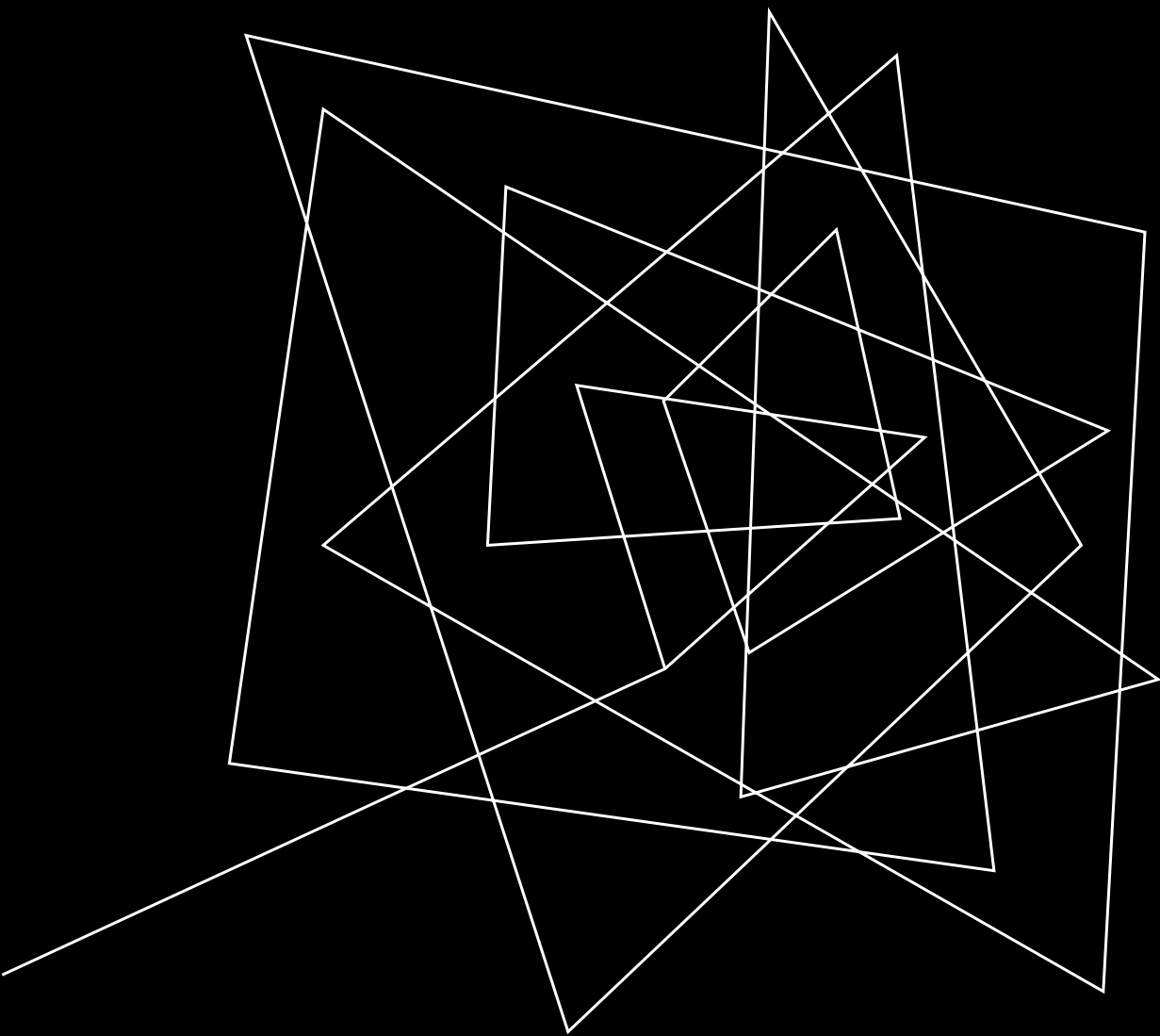
신자유주의 정치위기의 계급적 배경과 전망

2025년 4월 2일(수)

강민형

발표 순서

1.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2.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
3. 위기의 진보적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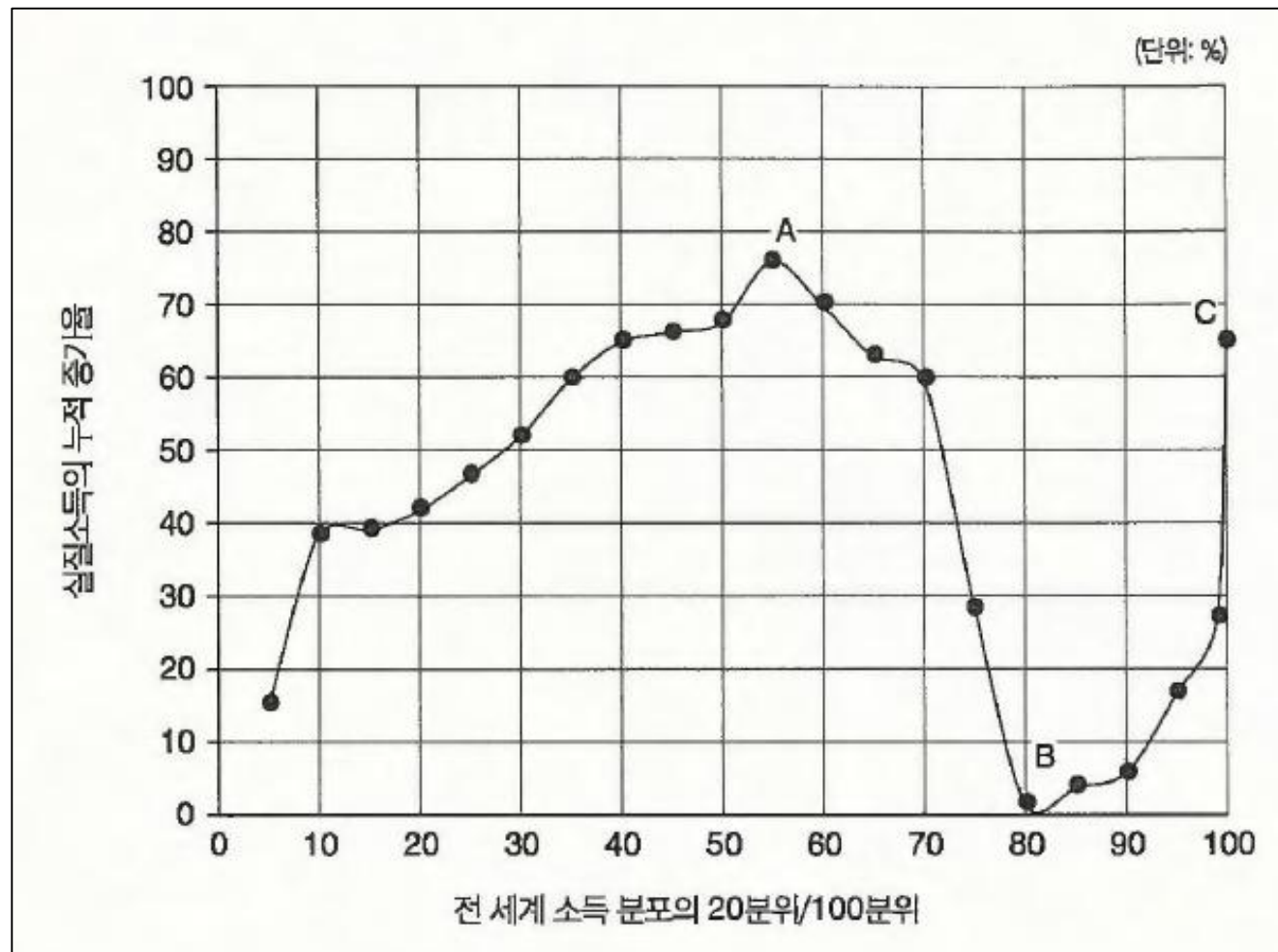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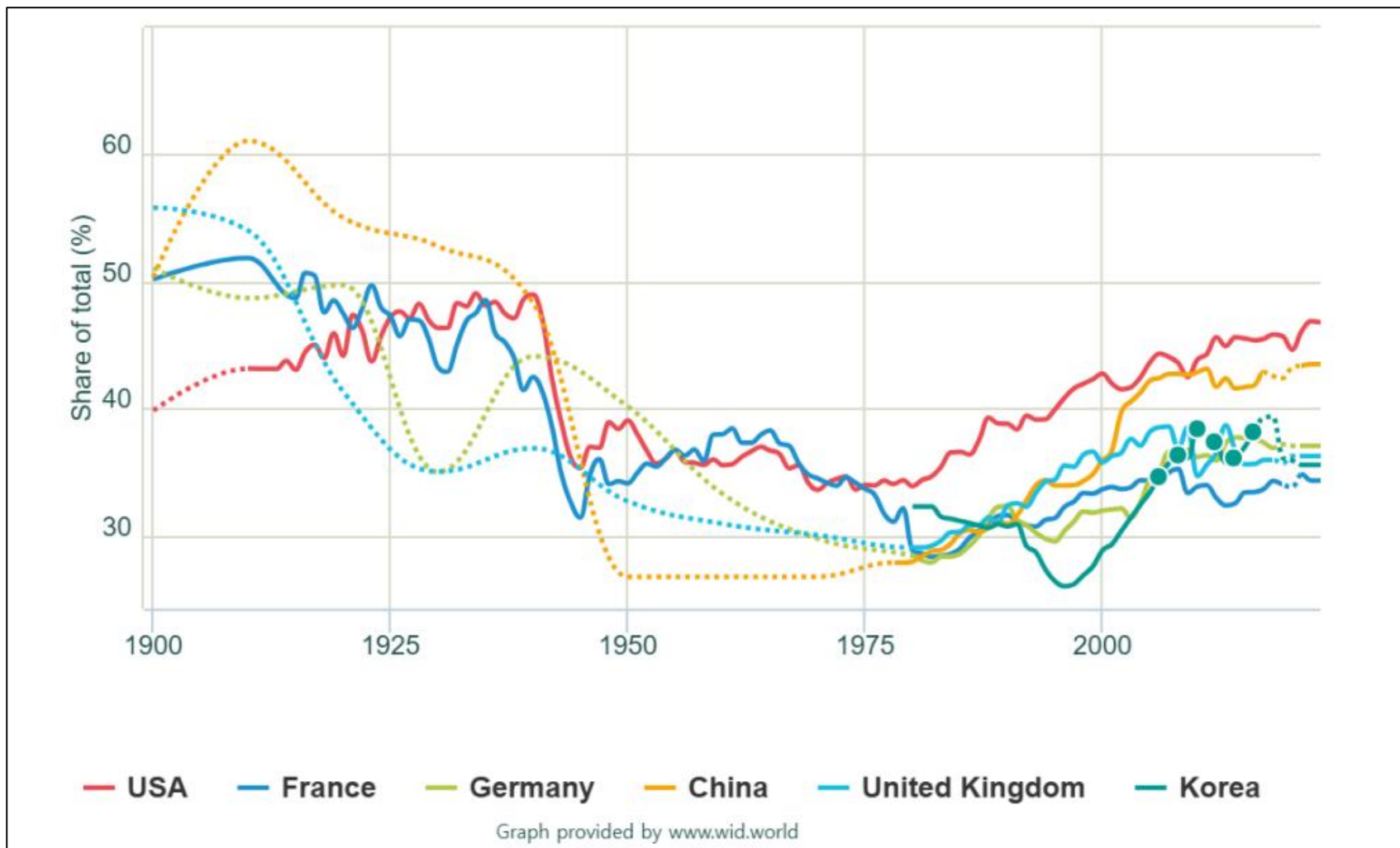
낸시 프레이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 헤게모니: 지배계급이 자신의 세계관을 사회 전체의 상식으로 상정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하는 과정
- 미국의 **진보적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 68운동 이후 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부상 + 금융 자본 및 IT 산업의 발전(세계화의 수혜자)
- 미국과 글로벌 북반구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쇠퇴: 상위 10% 혹은 최상위 1%, 0.1% 계층으로 소득 집중 심화(토마 피케티)
- 신자유주의 세계화 → 노동계급 쇠퇴와 불평등 심화 → 포퓰리즘의 부상(좌/우파) + 제도 정당의 약화
- 유기적 위기: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전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의 상대적 증가율 (198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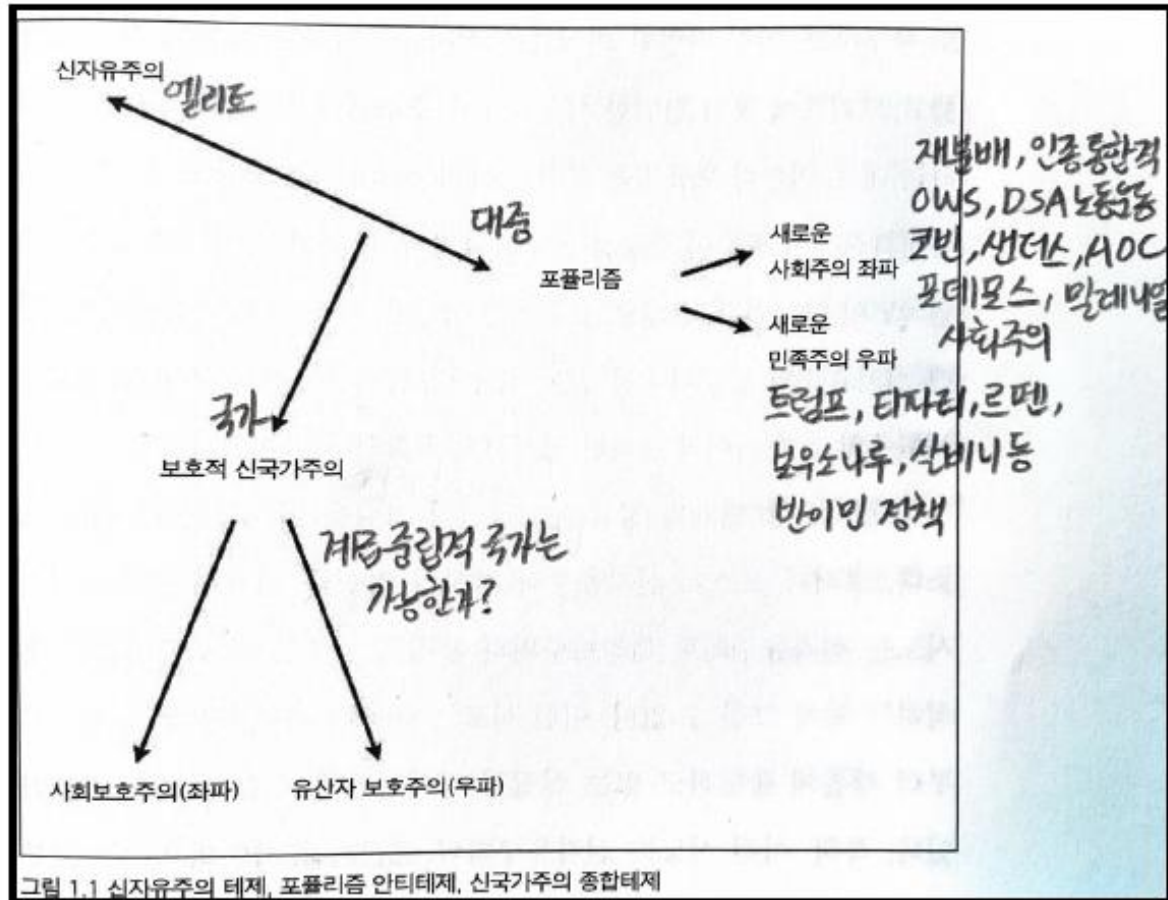


주요국 상위 10% 개인의 전체 소득 점유비율 변화



포스트 신자유주의: 포퓰리즘과 보호적 신국가주의

•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 2010년대 포퓰리즘의 계기: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우익 정치가에 대한 지지로 변형(신자유주의 엘리트에 대한 불신) → 이를 좌파 포퓰리즘(민주주의의 급진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재분배의 정치)
- 21세기 포퓰리즘은 서구 핵심 자본주의 국가에서 출현(경제적 저발전의 결과 아닌 과발전의 결과): 포퓰리즘 현상이 문제라는 접근방식보다는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의 구분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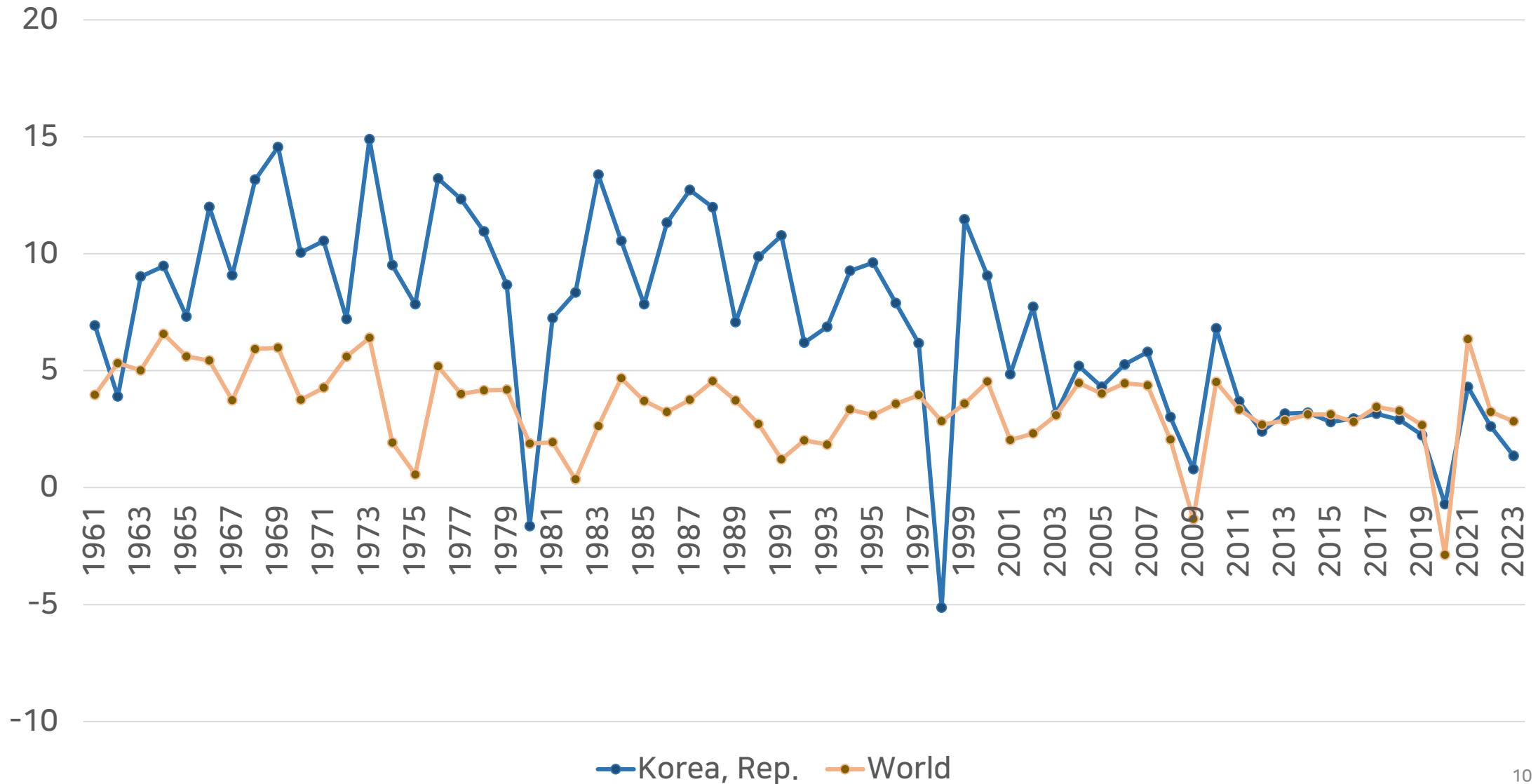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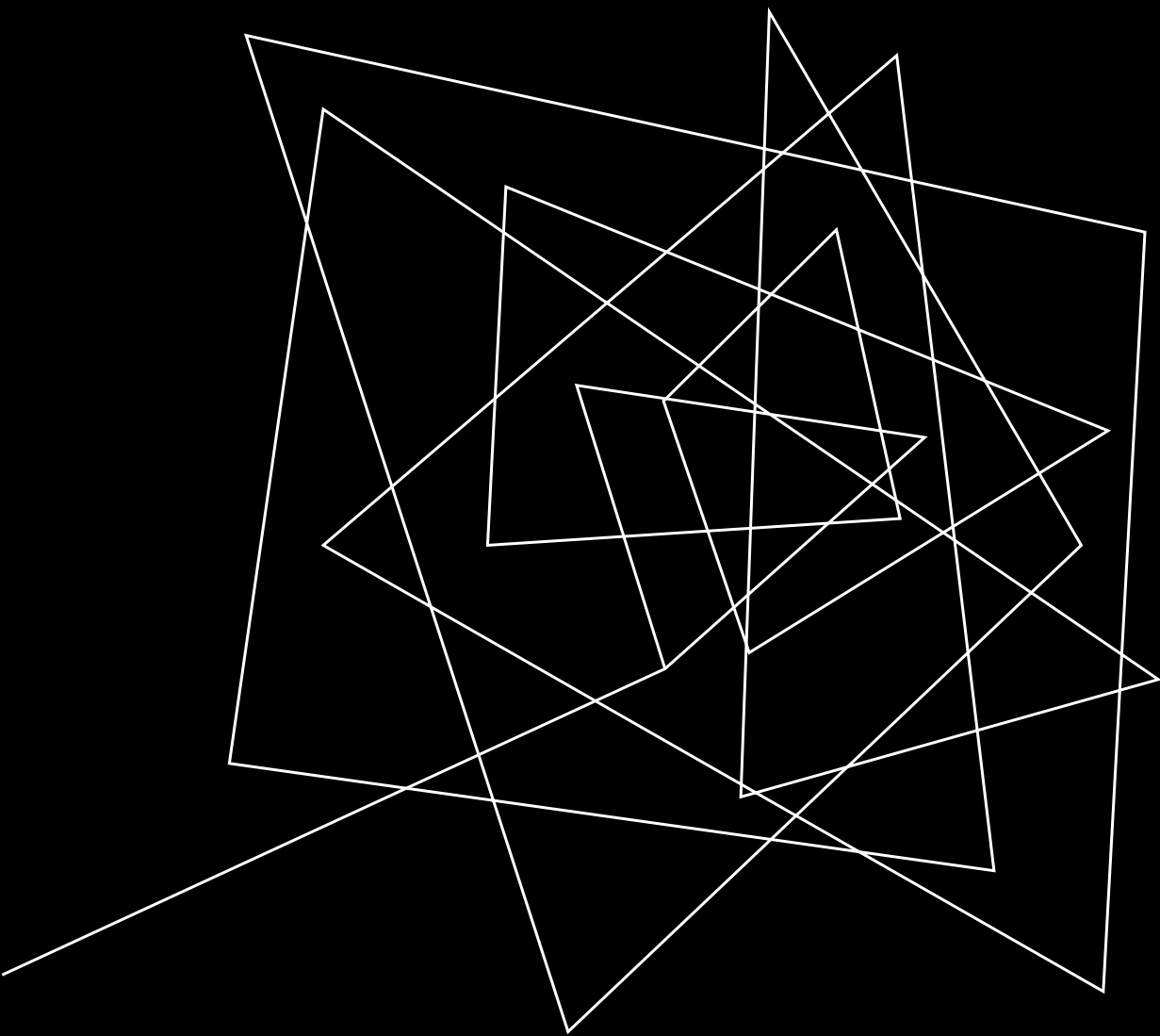
- 이중의 이행: 민주화 이행(민주주의 공고화, 시민사회 강화) + 신자유주의 이행(개발 독재의 쇠퇴, 세계화)
- 정치경제: 생산의 세계화, 경제의 금융화, 재벌 기업의 초국적화 →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경제 활동의 고도화(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
- 노동정치: 조직 노동에 대한 공격, 불안정 노동의 확산, 노동시장 유연화/이중화 체제 → 계급정당의 실험 실패, 노조 조직률 정체
- 선거정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최소강령·최대연합(비판적 지지) → 중도 우파의 변형주의 → 복지국가의 발전 + 조직 노동의 배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 불평등 심화(정당성 위기) + 성장의 둔화(수익성 위기)
- 사민주의적 변형주의(참여정부): 신중도, 제3의 길 등 유럽 사민주의 정당의 개혁 노선과의 유사성
-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 한국 경제는 중국의 호황에 힘입어 제조업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경험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성장 둔화
- 2010년대 권위주의 정치 세력의 재부상과 극우의 도전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포스트 성장 경제로의 진입

한국과 글로벌 경제 성장률 비교, 196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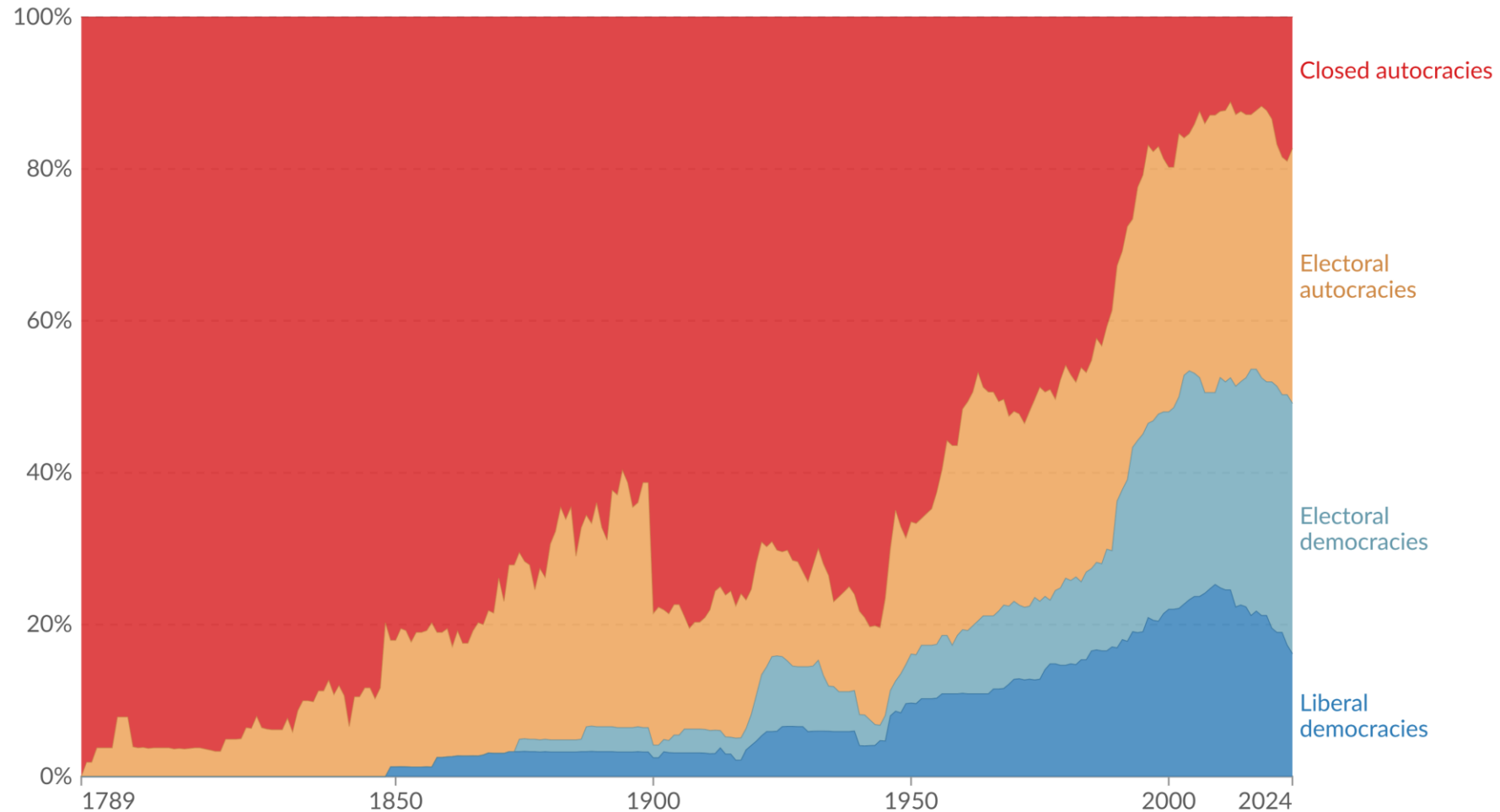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의 정치체제: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

Countries that are democracies and autocracies, World

Our World
in Data

Political regim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by Lührmann et al. (2018) and the estimates by V-Dem's expe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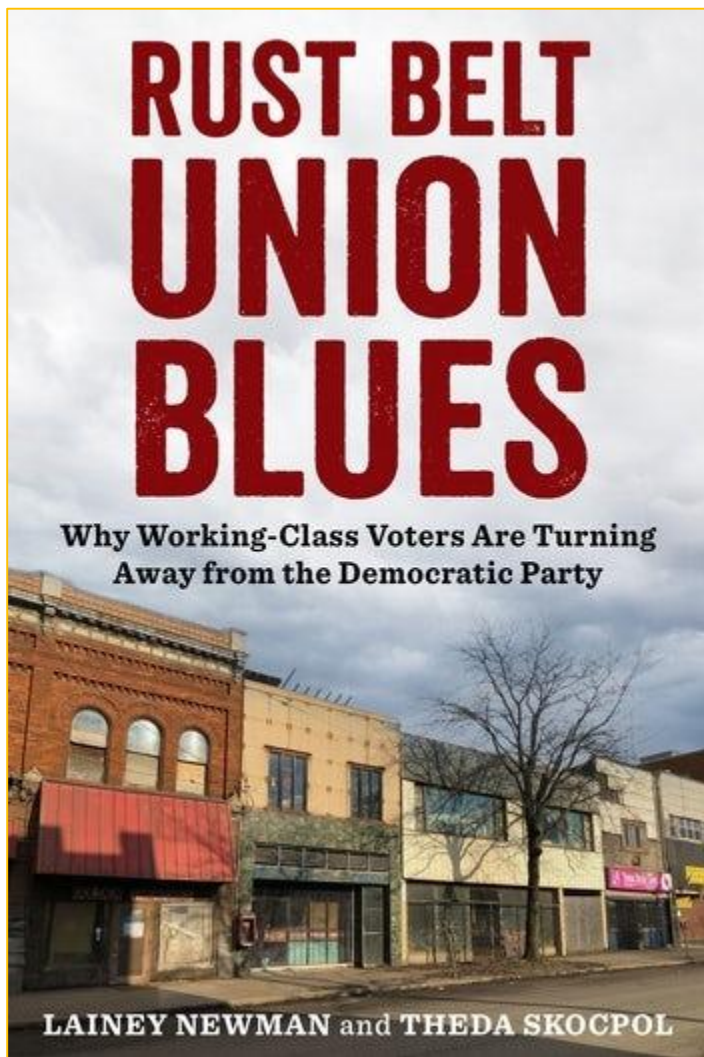


Data source: V-Dem (2025)

OurWorldinData.org/democracy | CC BY

Note: The share of closed autocracies increases a lot in 1900 because V-Dem covers many more countries since then, often colonies.

미국에서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



-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 미국 남부의 백인 기독교인 +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의 노동계급
- 탈산업화 → 노조 조직률 감소 → 정체성 형성의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쇠퇴 → 대형교회와 같은 보수적 시민사회 조직이 노조를 대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철강 노동자들

엘리 혹실드, 자기 땅의 이방인들: 미국 우파는 무엇에 분노하고 어째서 혐오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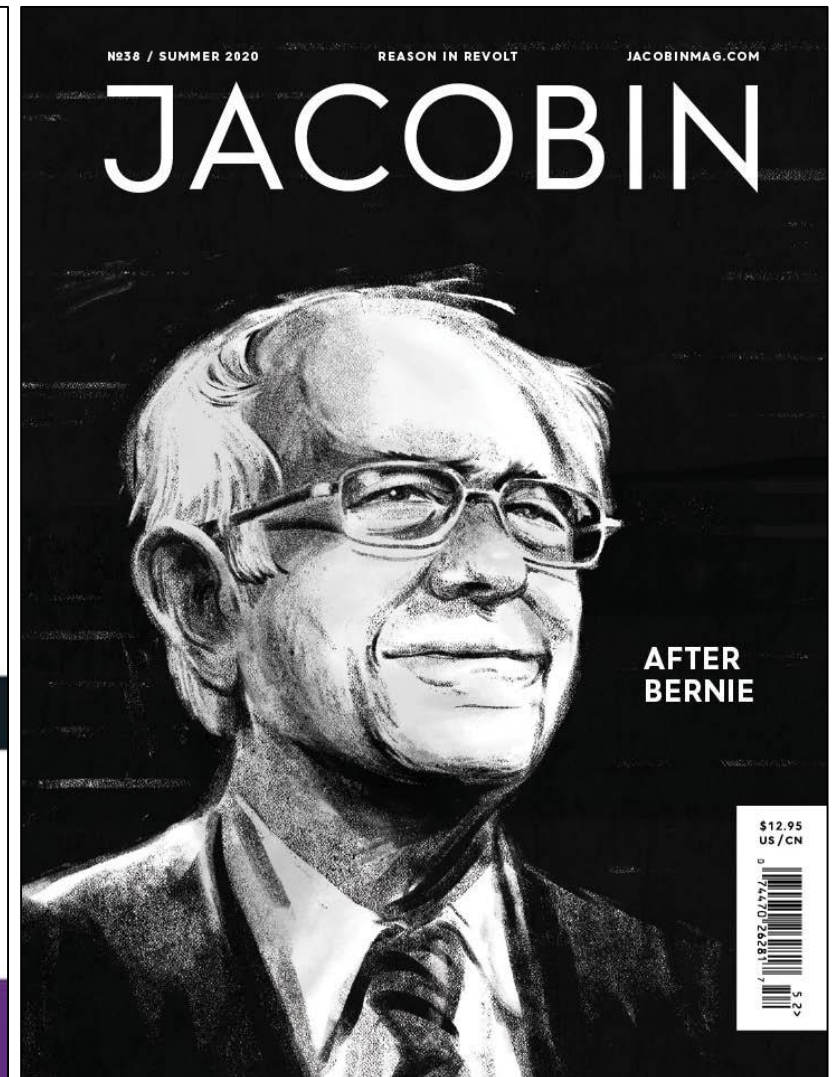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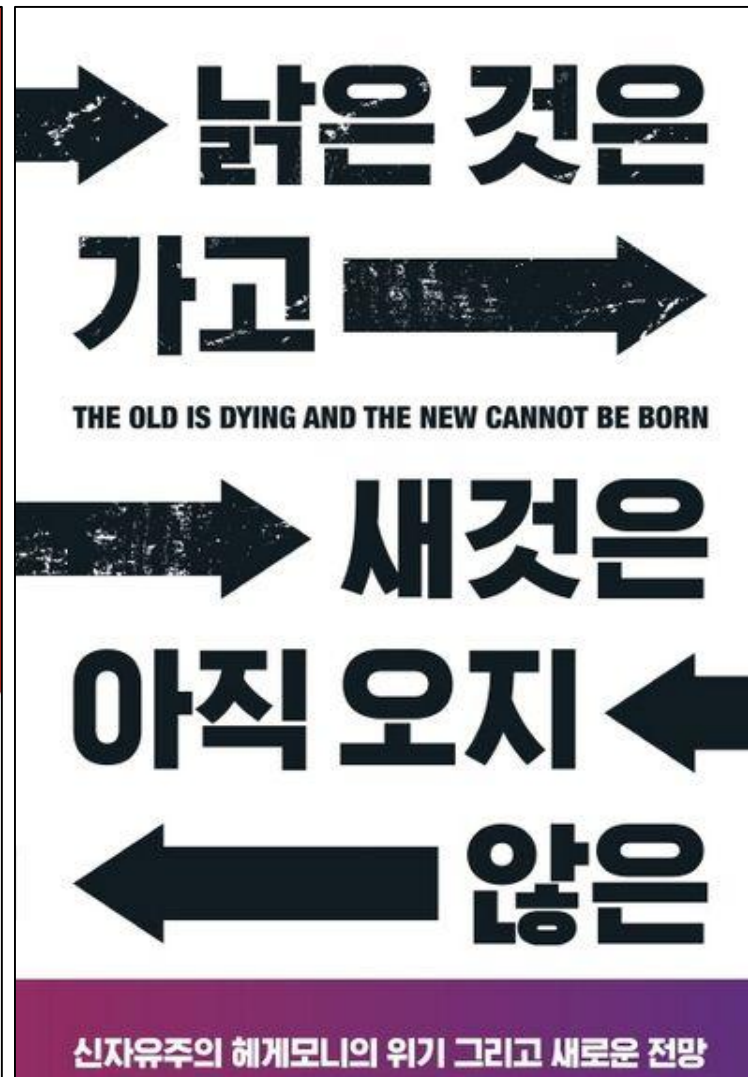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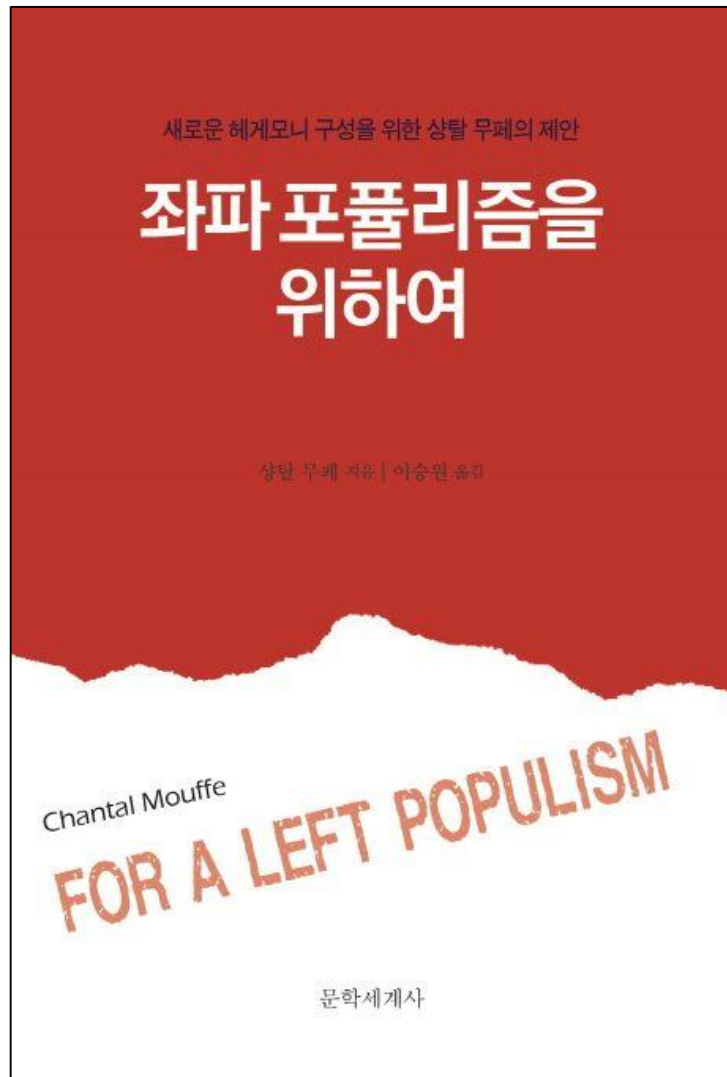


- 미국 남부 백인 기독교인들이 티파티 운동에 참여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 인내심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줄을 서 있는 중년의 백인 노동자 VS. 새치기를 하는 흑인, 여성, 이민자, 난민, 공공 부문 노동자, 복지 수혜자

세계화는 어떻게 포퓰리즘의 부상을 낳았는가?

- 세계화 → 경제적 혼란(실업, 불평등) → 정체성/정책 선호의 변화 → 선거 결과(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
- 대니 로드릭, 2012년 미 대선 오바마 지지자 중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무역 자유화와 이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함
- 데이비드 오터, 중국과의 자유 무역에 따른 충격이 큰 지역에서 폭스 뉴스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정치인에 대한 기부가 증가함

반세계화 정치로서 좌파 포퓰리즘



캐스팅 보트를 쥔 미국의 노동계급

2024 ELECTIONS

The New York Times

2024

UpdatesPresidentLive ForecastSenateHouseTimingPhotosState Results

LIVE

Last updated 11:11 p.m. E.T.

Pennsylvania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 See all Pennsylvania state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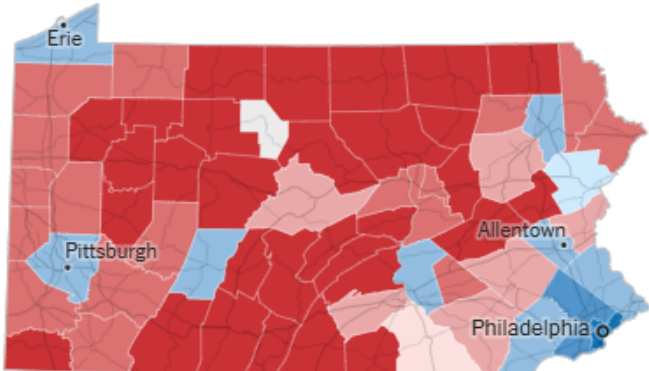
The most important battleground state, Pennsylvania has the highest number of electoral votes. For either candidate, a path to victory without the state would be complicated.

Latest results from just now

73% OF VOTES IN

NYT

Candidate	Party	Votes	Pct.
 Donald J. Trump	Republican	2,598,294	51.3%
 Kamala Harris	Democrat	2,415,783	47.7%
Total reported		5,061,864	
+ Show all candidates			



D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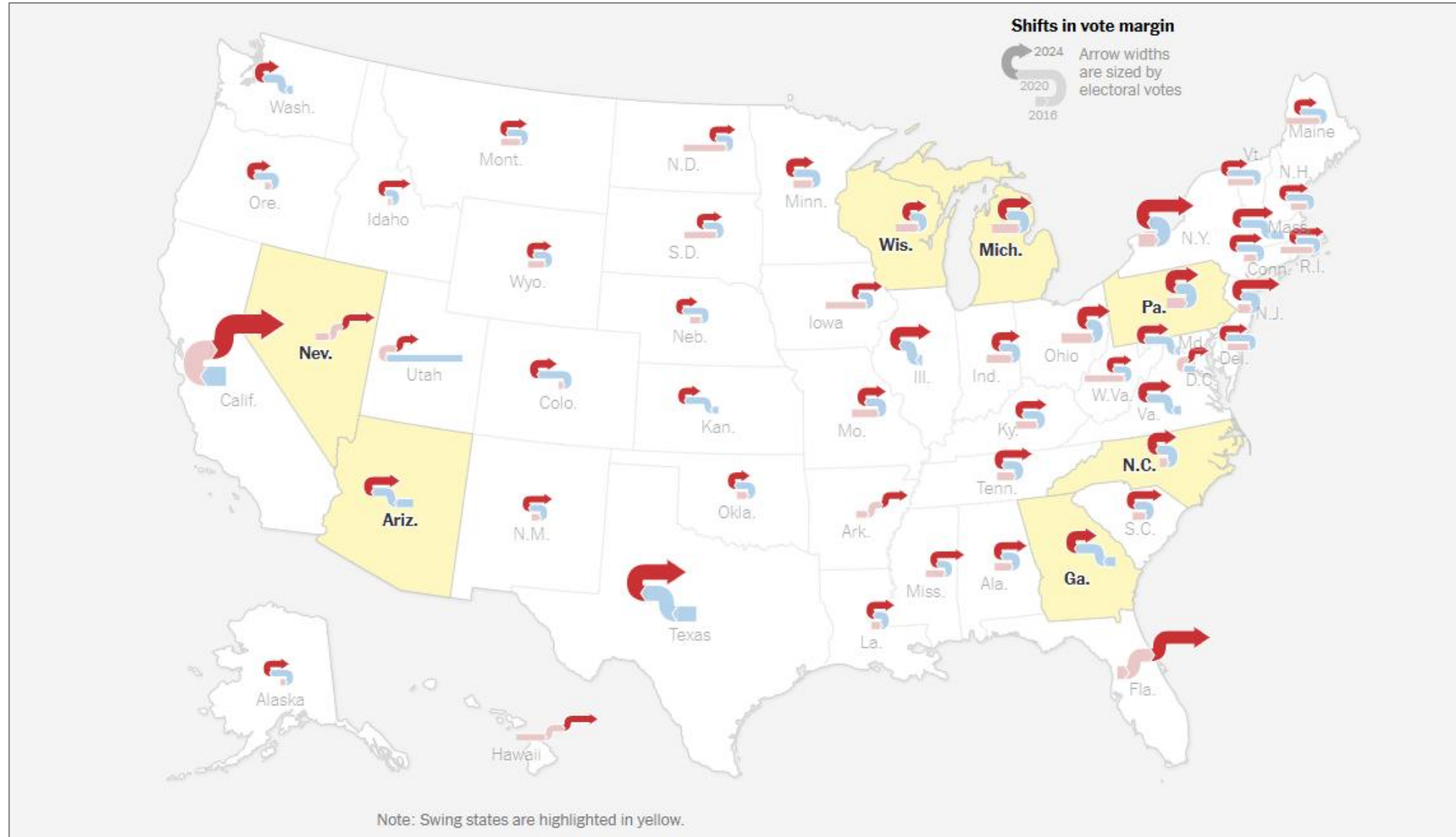
506070%

Rep.

506070%

No results

2024년 미 대선 결과: 2020년과의 비교



파시즘과 트럼피즘에 관한 테제(딜런 라일리)

- 20세기 전반 전반기 파시즘: 제국주의/지정학적 갈등 - 전쟁(1차 세계대전) - 혁명 - 우파 대중 동원(노동계급에 맞서는 대항 동원) - 파시즘의 부상(소부르주아, 지주의 지지) - 계급 투쟁
- 격화된 계급 갈등과 세계 대전: 고도의 대중 동원에 기반을 둠
- 파시즘에 대한 해법: 민주적 제도의 복원(중도파), 파시스트에 맞선 대중 투쟁 조직(좌파)

파시즘과 트럼프즘의 차이점과 공통점(딜런 라일리)

- 21세기 트럼프즘: 오바마 민주당의 개혁 실패 - 좌우파 포퓰리즘의 등장 - 트럼프의 선거 승리(조직 노동과 좌파의 약한 힘, 혁명의 위협 부재) - 기존 정당 시스템과 시민사회의 분열
- 선거 현상으로서 트럼프즘: 낮은 대중 동원과 약한 시민사회
- 공통점: “비민주적” 우파 지도자들의 부상 - 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정당의 목표로 접합(반세계화, 반 이민 등 백인 민족주의, 고립주의-보호무역, 인종주의,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극우의 기동전, 진보의 진지전?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2025년 한국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

- 불평등 해결을 위한 재분배 개혁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유럽 사민주의 정당, 한국 민주당)은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지 못함
- 헤게모니 없는 지배로서 미국의 세계 패권의 한계: 우방국에게 정당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릿세나 뜯어내는 조폭”(protection racket)으로 전락함 → 미국 헤게모니의 정당성 위기
- 2010년대 초 글로벌 자본주의는 체계적 카오스라는 장기 위기에 진입

2020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극우정치, 사회운동



불평등, 저항, 사회운동: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서 2024년 윤석열 계엄까지

-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권위주의 정부와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 이른바 “촛불혁명”(민주대연합)
- 문재인 정부(중도보수)의 개혁 시도 실패: 격차와 불평등 확대, 급진 극우운동의 형성(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제도권 우파)
- 윤석열 정부의 집권: 조직 노동에 대한 공세, 페미니즘에 대한 배격, 청년 남성(수동적 지지자), 노년층(열성 지지자)의 지지
- 대통령 권력(극우 보수)과 국회 권력(중도 개혁)의 충돌: 우파 포퓰리즘 동원의 핵심으로서 극우 기독교
- 친위 쿠데타의 실패와 극우의 (사후적) 동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 계엄과 뒤 이은 탄핵 국면은 냉전 반공주의라는 저류의 정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됨: 제도권 정당 정치와 극우 이데올로기 간 친화성

Q

U.S. INTERNATIONAL CANADA ESPAÑOL 中文

Tuesday, December 3, 2024

Today's Paper

The New York Times

U.S. World Business Arts Lifestyle Opinion Audio Games Cooking

LIVE South Korea Turmoil 9m ago Trump Transition 31m ago

LIVE 6m ago

South Korean President Faces Fury After Failed Martial Law

President Yoon Suk Yeol backed down from his martial law order within hours. Protesters now want him to resign or be impeached. See new updates >

How Polarized Politics Led South Korea to a Plunge Into Martial Law

Yoon Suk Yeol's decree, and reversal under pressure from lawmakers, were the culmination of years of feuding between the country's two main political camps. 5 MIN READ

Military and police security forces clashed with protesters outside the assembly.

Chang W. Lee/The New York Times

Christina Kelso and Jamie Leventhal

Self-coup

Article Talk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 **self-coup**, also called an **autocoup** (from *Spanish* *autogolpe*) or **coup from the top**, is a form of *coup d'état* in which a political leader, having come to power through legal means, stays in power through illegal means through the actions of themselves and/or their supporters.^[1] The leader may dissolve or render powerless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unlawfully assume extraordinary powers. Other measures may include annulling the nation's constitution, suspending civil courts, and having the head of government assume dictatorial powers.^{[2][3]}

From 1946 to the beginning of 2021, an estimated 148 self-coup attempts took place, 110 in autocracies and 38 in democracies.^[4]

Notable events described as self-coups [edit]

- France: President Louis-Napoléon Bonaparte (December 2, 1851)^[5]
- Romania: King Michael I of Romania (August 23, 1944)^[6]
- Bolivia: President Mamerto Urriolagoitia (May 16, 1951)^[7]
- Pakistan: Governor-General Ghulam Muhammad (April 1953 – September 21, 1954)^{[8][9]}
- Indonesia: President Sukarno (July 5, 1959)^[10]
- Philippines: President Ferdinand Marcos (September 23, 1972)^{[5][11]}
- South Korea: President Park Chung Hee (October 17, 197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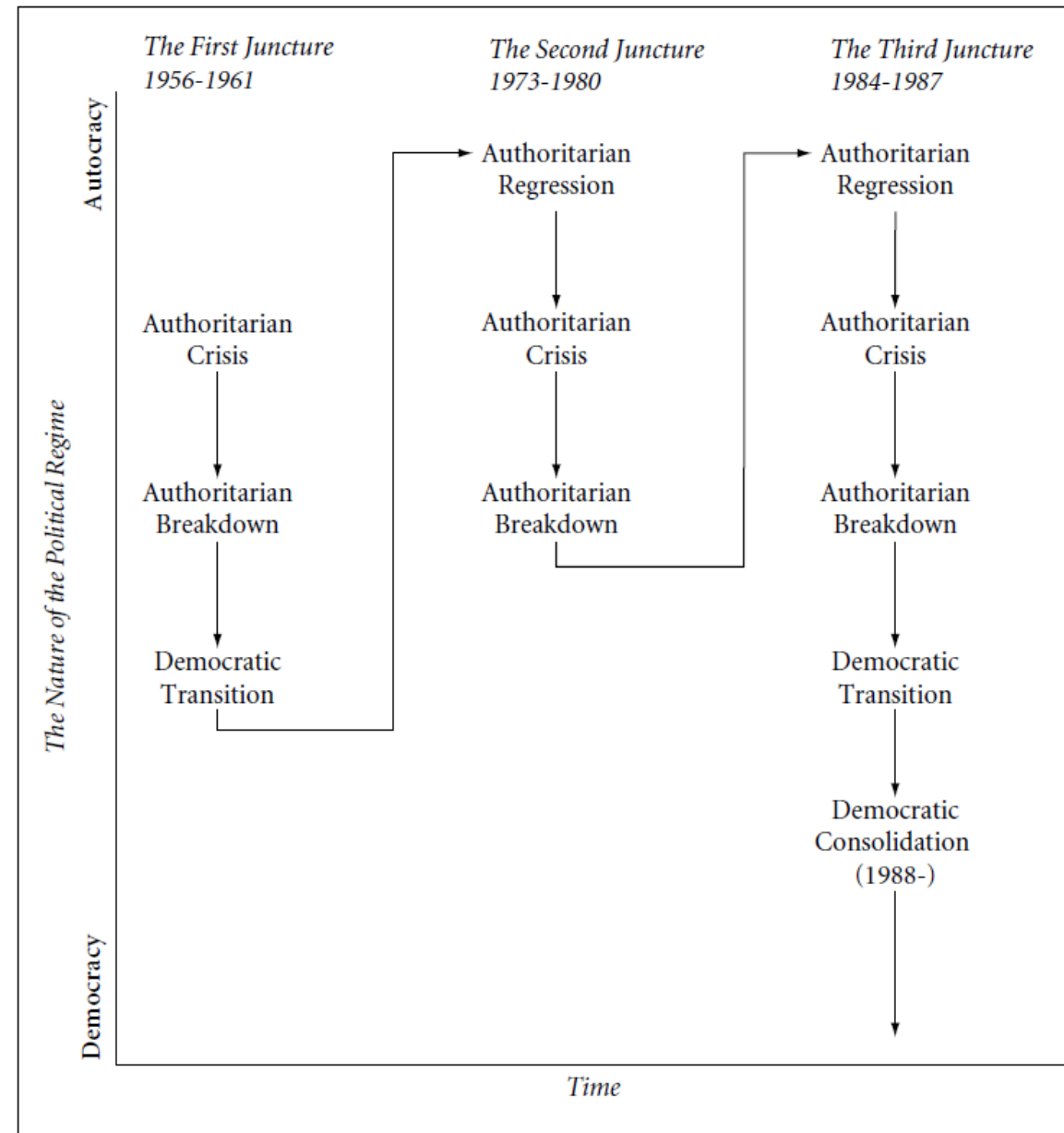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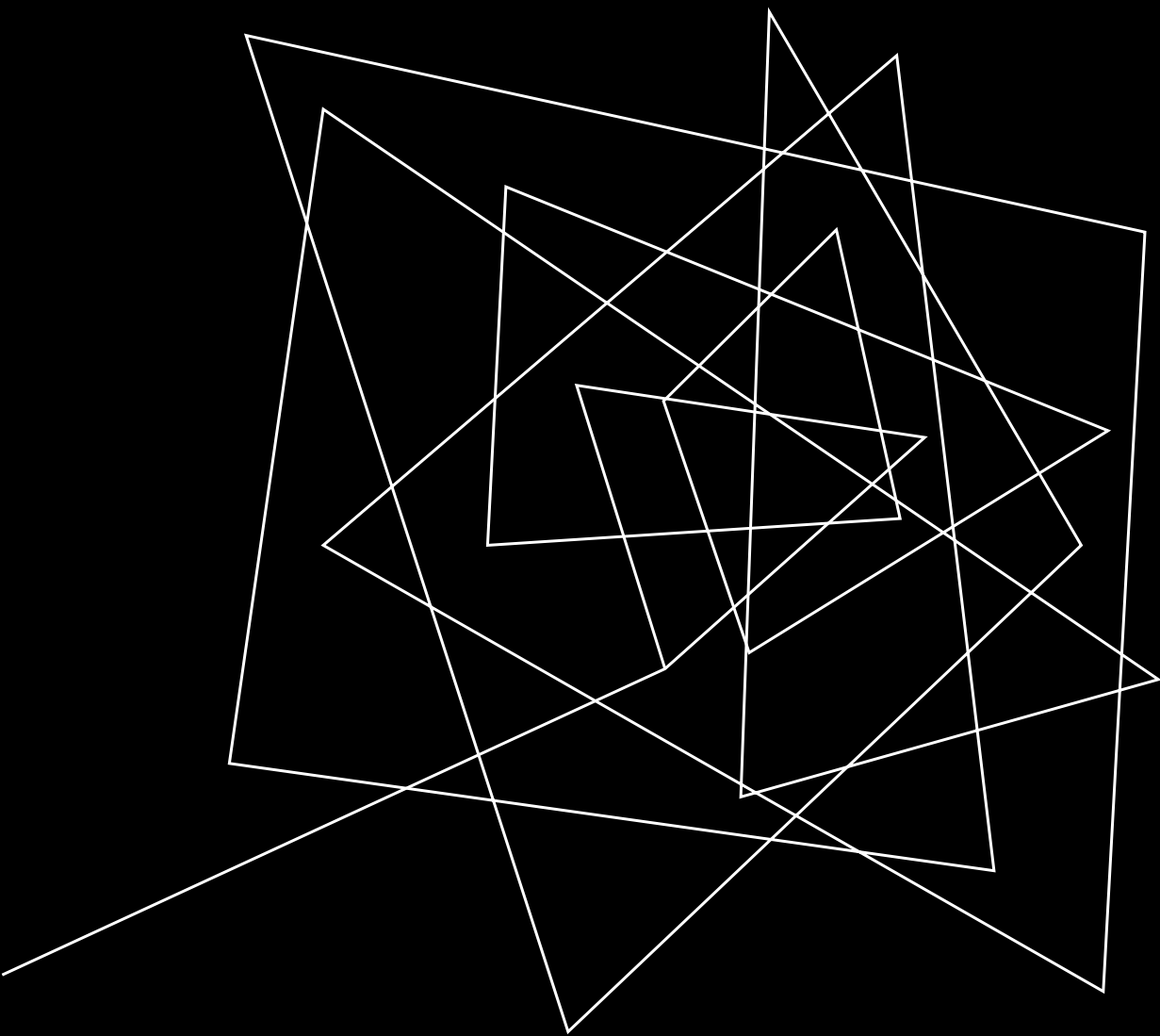
Cavalryman on the French Revolution
Napoleon Bonaparte, Emperor

냉전 시기 한국의 군부 독재와 민주화 이행

Three Democratic Junctures in Korea: Periodization

	1st Juncture	2nd Juncture	3rd Juncture
Authoritarian crisis	1956– April 1960	1973– October 1979	1984– June 1987
Authoritarian breakdown	April 19, 1960	October 26, 1979	June 29, 1987
Democratic transition	April– August 1960	n/a	June– December 1987
Authoritarian regression	May 16, 1961	May 17, 1980	n/a
Democratic consolidation	n/a	n/a	1988–





위기의 진보적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한국의 국가형성, 자본축적, 저항적 시민사회

- 한국은 탈 식민 국민국가 형성 과정이 냉전 세계질서와 맞물려 있음
- 냉전 세계질서는 한반도에서의 열전을 통해 형성됨  국가 형성 시기 좌파와 조직 노동의 패배
- 후발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 발전국가 주도 경제 성장, 재벌의 형성
- 반권위주의 민주화 운동: 재야, 시민사회, 학생운동
- 1980년대 학생운동: 국가 형성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제거되었던 진보/좌파운동의 유산과 노동운동의 복원을 시도

갈림길에 선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사회

- 민주화 이행과 노동자 대투쟁: 노동조합(계급적 산별 노조) 및 정당(좌파 정당)을 통한 노동자-시민의 조직화
- 산별 노조와 계급정당 강화를 통한 사민주의/사회주의 정치 전략은 왜 실패하였는가? 현장 기반 약화와 대중적 지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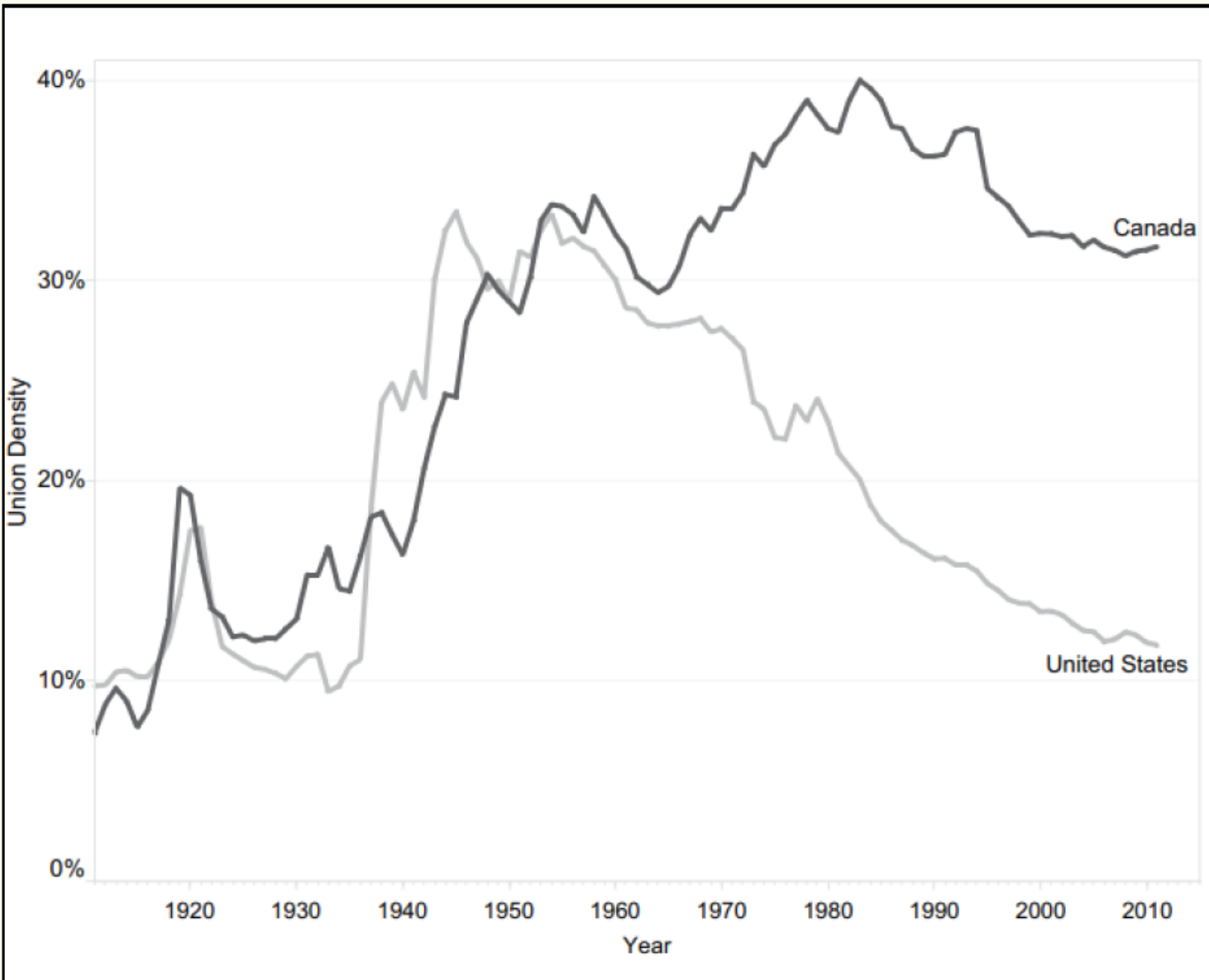
민주당의 진보적 견인(빅텐트, 비판적 지지, 민주대연합) 노선의 승리

- 진보적 시민사회는 민주당을 끌고 가는가, 민주당에 끌려 가는가?
- 민주당은 좌파 포퓰리즘의 거점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인가?
- 극우-보수 양당으로부터 자율적인 계급 정당은 불가능한가?

노동(조합)운동: 이익집단인가 계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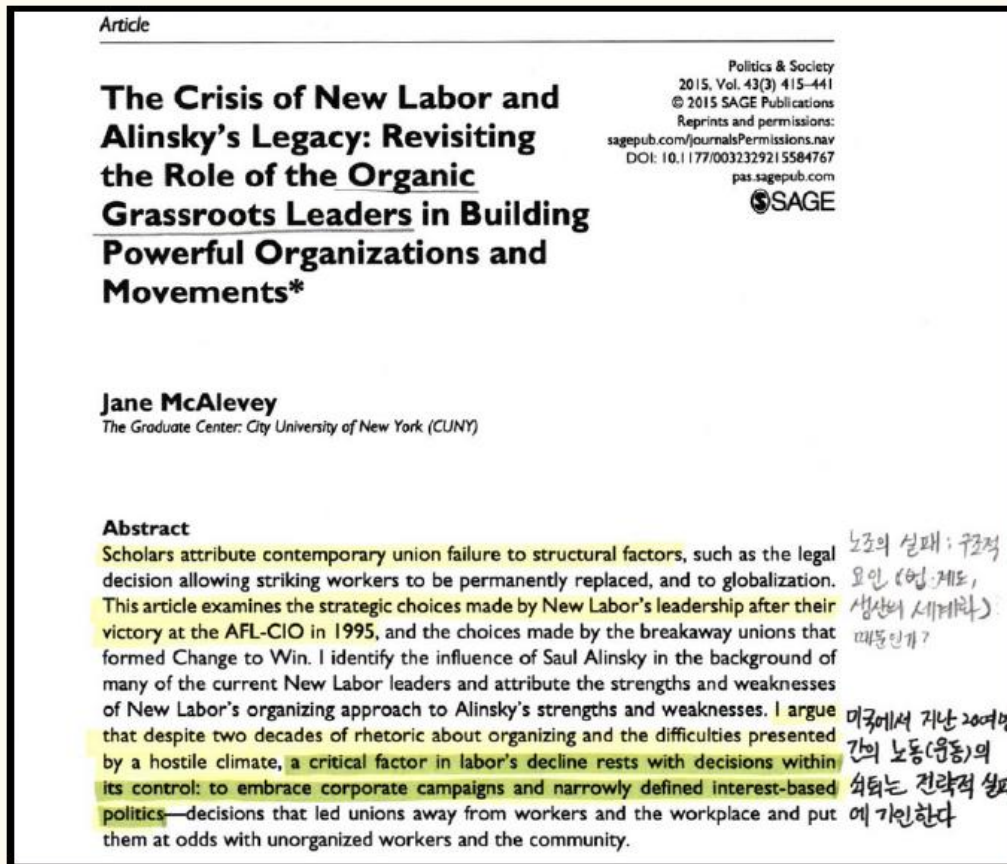
시기 구분과 국면 비교

- Barry Eidlin의 연구
- 미국과 캐나다의 노조 조직률 비교
- 왜 미국의 노동운동은 쇠퇴하는가?
미국-캐나다 간 비교를 통해 대안적
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설명
- 미국 노동운동의 흥망: 1930년대 중
반 노동소요와 이후 급진 노동운동의
성장과 쇠퇴
- Class idea vs. pluralist idea
-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 사이의 관계:
계급 정당이 부재한 미국



노동운동의 전략: 동원인가 조직화인가?

미국의 신 노동운동 전략의 실패



제인 맥켈러비, 풀뿌리 조직화

- 1990년대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의 부상에도 미국의 노동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 구조적 요인: 세계화-탈산업화, 신자유주의
- 행위 요인: 동원 중심의 운동 전략 + 이익 기반의 정치 (전략적 선택의 실패)
- 동원: 노동자 대중, 지역사회 지지가 없는 활동가 중심의 투쟁
- 조직화: 계급에 기반을 둔 노동자 대중 (rank-and-files) 조직화, 유기적 리더

계엄 이후의 국면적 계급 분석

- 24년 12월 계엄 이후 정치적 국면에서 민주당과 연합 전선을 좌파 포퓰리즘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대연합-빅텐트-비판적 지지론의 목소리가 진보적 시민사회 내에서 증폭됨
- 조직 노동 상층과 명망가-활동가는 각자의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함
- 현장의 평조합원과 노조 활동가들은 2016-17년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동원력과 조직력을 보임
- 극우 시민사회의 동원과 탄핵 선고 지연: 8년 전 촛불-탄핵-대선의 정치 일정과 달리 거대한 반격을 노리는 극우파

20세기 파시즘, 21세기 우파 포퓰리즘

- 고전적 파시즘: 노동계급-좌파 배제 + 포퓰리즘 동원을 통한 새로운 헤게모니 블록의 형성(중간계급에 대한 포섭) → 자본주의 핵심부 헤게모니 국가와 경합하는 국가/지역에서 발생
- 21세기 포퓰리즘: 쇠퇴하는 자본주의 핵심부 국가 내부에서의 정치적 동원(신자유주의, 세계화, 불평등에 대한 불만) + 글로벌 남반구의 우파 포퓰리즘이 고전적 파시즘과 보다 유사함(권위주의 정치 지도자의 발전 프로젝트)
- 한국의 우파 포퓰리즘은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일탈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급 프로젝트인가?



감사합니다!